

## 2020년 2월 시청자위원회 (서면회의)

2020년 2월 25일 (화)

참석 : 김선재위원장, 권부남 부위원장, 박상민 위원, 양선희 위원, 서한나 위원

### 김선재 위원장

<우리동네 예비후보 미리 만나보기>

코로나로 전국의 모든 뉴스와 기사가 도배된 상황에서도 대전지역 총선과 관련된 선제적인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송사에 비해 출마의사를 밝힌 대전 지역 내 예비 후보의 5-6분 가량의 PR영상을 담겨 있어 부담 없이 시청해보았습니다.

지역구별 공천과 출마 후보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관심과 환기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콘텐츠를 검색하려면 대전 MBC를 검색하거나, <우리동네 예비후보 미리 만나보기>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름을 검색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내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전 총선], [대전 대덕 총선] 등 구체적인 검색어를 통해 접근하는 것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성장기 시즌 2 독전>

시즌 1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던 콘텐츠 크리에이터 성장기 '독전'을 처음으로 시청해 보았는데, 그 내용과 구성이 신선하여 좋았습니다. 특히, 1인 방송의 시대가 단순히 20-30대만의 전유물이 아닌 나이와 신분을 막론한 다양한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문화적 흐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산별곡'과 '어부대전'의 콘텐츠 대결을 주로 시청했는데 50여 분간의 러닝타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전개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유선방송과 지역방송의 접근성을 넘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계층에게 전략적인 홍보로 많은 시청자가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 권부남 부위원장

<다큐 에세이 그 사람> 2월 13일 (목)

'청춘, 국악의 판을 바꾸다' 편. 국악의 대중화를 꿈꾸고 이끄는 국악인 '이윤아'의 이야기로 구성하였는데, 젊은 국악인의 현실적인 고민과 그녀가 이루고 싶은 '국악 대중화'의 바람까지 담담히 잘 담아내고 있는 구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들에 많이 다뤘던 국악 명창이나 전수자들의 모습이 아닌 20대 풋풋한 국악인의 이야기를 담아낸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국악의 대중화에 관한 고민을 나누는 친구들과의 대화나 팬클럽들의 모습도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퓨전국악’이라는 장르를 소개하며, 좀 더 보충 설명이 있으면, 시청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박상민 위원

<노정렬의 시사각각 : 신종 코로나 대책은 ?> 2월 8일

아직 국내 확진자가 많지 않을 때 코로나19 환자 증상, 검사기관 정보(1339콜센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예방대책 등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시의적절한 방송이었습니다.

패널로 대전시 보건복지부 국장, 의학전문가, 바이러스전문가가 출연하여 잘 설명해줌으로써 생소한 코로나19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방대책으로 마스크쓰기와 손씻기를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마스크 올바르게 쓰는 방법과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려줘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대해 의학전문가가 바로잡아주는 시간을 가진 점 좋았습니다.

<내가 그리는 세상 : 생활 속 자연보호> 2월 8일

공주대 영상학과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진과 간단한 삽화를 통하여 보기 쉽게 전달하고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환경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 습관하나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하면서 누구나 쉽게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영상으로 잘 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 양선희 위원

<뉴스데스크>

1. 2월 5일 ‘대전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10%대’

- 대전 지역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을 제시하며 ‘조승래 의원이 98.59%로 가장 높고, 이상민, 이장우 의원이 85.21%로 가장 낮았다’고 보도
- 전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비교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  
방송 권역을 고려한다면 충남과 세종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동일 정보도 제공되어야 함. 시청자 중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할 수 있음

2. 2월 6일 ‘대전·세종·충남 열화상 카메라 운영 0곳’

- 전국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열화상 카메라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대전시로 하여금 신속하게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도록 유도한 점에서 긍정적  
(2월 18일 뉴스에서 대전시 주요 역과 터미널에서 열화상 카메라 운영 시작 보도)

### 3. 2월 7일 <집중취재> ‘뉴트로’ 재개발의 그늘... 빈집이 10억 호가

- 외부자본 유입으로 원도심 집값이 급등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보도  
前 쪽방촌거주자, 대전시 공무원 등 인터뷰
- 중요하고 시의적인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심층성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음  
前 쪽방촌거주자의 인터뷰를 제외하면 실제 사례들이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나 현상 그 이상의 이슈나 쟁점이 부족
-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월) 보도에서 대전시장이 원도심 재개발 부작용에 대한 대책기준 마련을 지시했다는 후속 보도가 있었던 점은 다행

### 4. 2월 11일 ‘오스카 쾌거... 대전 영화산업도 훈풍’

- 오스카상 수상과 관련하여 대전의 스튜디오 큐브를 소개하고, 영화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 문화산업이 21세기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산업적 측면만 부각시킨 점은 아쉬웠음
- 영상관련 인력 양성이나 일반인들의 영화/영상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변화 등도 함께 제시해주는, 보다 넓은 스펙트럼이 요구됨

### 5. 코로나 19 관련 보도

- 감염 확산 현황이나 지역 사회 감염 우려, 아산 격리 시설 관련 보도, 지역 경제 타격 등을 중점 보도
-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보도 외에 보건의료체계나 음압병상 현황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점검 등으로 시청자의 불안감을 완화시키거나 또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의 보도가 아쉬웠음

### <크리에이터 성장기: 독전2>

#### 1월 28일, 2월 4일, 11일 ‘금산별곡 VS 대전어부’

- <나는 자연인이다>를 연상시키는 ‘금산별곡’과 <도시어부>가 떠오르는 ‘대전어부’는 비슷하면서도 대비되는 소재와 배경이어서 흥미로운 구성이었다고 생각됨
- 시즌 1보다 한층 여유롭고 웃음의 포인트를 살리는 등 진화된 모습들이 포착됨  
예) 코디 박찬규가 TV 방송의 인위적 표현에 익숙한 모습(비유튜브적, 아날로그적)을 유튜브 방송과 대비시키는 부분이 재미의 포인트가 됨
- 아쉬운 점
  - ① 3편씩 시리즈로 방송되는데 시청자가 모든 방송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2,3회에서는 짧은 설명이 영상과 함께 있으면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스튜디오에서 전편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나 언급되는 내용이 전편을

시청했다는 전제가 느껴져 아쉬웠음)

② FS일 때 초대손님 노우진 발 아래 생수병이 노출

③ 11일 의상에서 진행자는 청록색(민트색), 맛상무는 주황색, 노우진은 빨간색 상의를 입어 신호등처럼 보였고, 화면 좌측에 위치한 코디들과 유리된 느낌이 있었음

2. 2월 18일 '시를 발로 쓰는 남자 이준영' vs '레트로 듀오 오드리 양장점'

- 새작 크리에이터의 특성에 부합하는 패널이 섭외되어 방송 내용이 매끄러웠음  
(가수 요요미,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

그러나 '시를 발로 쓰는 남자'에게는 특화된 코멘트를 해주지 못한다는 문제점

- 이미 귀촌 채널을 운영하고, 구독자가 2만인 크리에이터에게 굳이 코디가 필요하지  
의문이며, 코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정당성 제시가 부족

## 서한나 위원

<건강플러스>

- 2월 8일 건강밥상 호두크림스프/호두롤 바나나프라이드

- 2월 15일 건강밥상 굴 새우 샐러드/굴 추러스

- 2월 29일 건강밥상 마파두부 반미/두부튀김 크림마요

메인 요리에 호두, 굴, 두부 등 동물성식품이 아닌 것들이 쓰여 반가웠다. 지난 1월 시청자위원 의견제시에서 말씀드린 것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최근 한국의 식문화에서 자주 발견되는 단어는 '비건'이다. 온라인 식재료마켓인 헬로네이처나 마켓컬리에서는 '비건' 카테고리도 따로 있을 정도다. 롯데리아에서는 패티와 소스, 빵 모두에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건버거 '미라클버거'를 출시했다. 비건은 단계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류, 육류, 알류를 포함해 동물성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비건식당, 베이커리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부터 대전에도 비건베이커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비단 비거니즘의 철학을 알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비건'들 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아토피나 비염 등 알려지기가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또 지병이 있거나 건강관리에 힘쓰는 노인을 중심으로 비건 식단은 인기다. 달걀과 우유 밀가루 등 백색 가루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베이커리는 언제나 단골들로 붐빈다. 비건 베이커리 운영자들은 비건요리법을 배우고자 하는 소비자를 위해 비건 쿠킹클래스를 열기도 한다.

비거니즘은 동물권과 연동되는 개념이다.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이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닌 삶의 파트너가 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동물권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건강한 식생활과 동물권에 점점 관심이 많아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비건'을 특집으로 방송을 구성해보는 것이 어떨까. 대전에도 비건 식당과 비건 베이커리가 많이 있고, 전문가 섭외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노정렬의 시사각각>

전국 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꽉 채워지면서 다른 소식을 듣기 힘든 상황인 가운데, 본 방송에서는 사태 이후에도 꼭 다루어야 할 이슈들이 다양하게 등장했다. 2월 2일 토론 주제였던 ‘대전하나시티즌 출범’은 축구에 관심이 없더라도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이슈인데 대전MBC에서 다뤄주어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한 의의가 있다.

2월 9일 토론 주제는 ‘코로나바이러스’였다. 지역사회의 대응이 중요한 만큼, 대전시 보건복지국은 어떠한 대응체계를 세우고 있는지 궁금했던 시청자들에게도 본 방송이 도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각국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과 “격리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확보한 병원이 대전 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점이 의미 있었다. 일반 시민들이 개인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지시해주어 바람직했다.

다만 출연자의 면면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누구인가 시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요소이니 시기에 관계없이 중요하다. 의료와 보건 계열을 대표하는 이들이 전원 남성은 아닐 것이다. 현장의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보건계열에 종사하는 여성이 한 명이라도 함께했다면 조금 더 균형감이 느껴지고, 시청자들의 올바른 인식에도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든다.

패널 섭외와 관련해 2월 16일 구성은 의미 있었다. 나이가 같다고 해서 모두 같은 입장과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듯 18세 안에서 다양한 패널을 섭외한 것이 눈에 띈다.

아쉬운 것은 패널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한일고등학교, 충남고등학교, 둔산여자고등학교, 보람고등학교) 인문계 계열이고, 대개 학생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이다. 18세 선거권 방송이라고 해서 꼭 교복을 입고 출연할 필요도 없다. 18세라면 당연히 학교를 다닐 것이라는 선입견에 힘을 싣는 화면이기도 하다.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을 곳은 더욱 적다. 다양한 의견이 경합하고 모이는 지역방송이 되기 위해 다음번 청소년 이슈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과 실업계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섭외하는 데 더욱 힘써주셨으면 한다.